

7 장 치유기적: 하나님 나라의 비전

주제)

치유기적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볼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나라의 안내자로 지목하기위해 예수 이야기에 덧붙여진 메시아적 표징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한다. 곧 예수의 역할을 해석한 이야기이다.

문제점)

장님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절름발이가 걷고, 어떤 병을 완치되고, 악령은 추방된다는 성경 속의 이야기가 수세기동안 선교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논점)

병이 나음 = 하나님의 공적
나쁜 결과 / 죽음 = 다른 쪽으로 비난을 돌림

예)West Virginia 탄광 폭발사건

12 생존 / 1 사망 ---God's miracle, Phrase the Lord..
2 hrs later
12 사망 / 1 중태 --- 소송 이야기가 꽃을 피움

실제 신자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기보다는 아닌 경우가 훨씬 많으나 기적에 대한 희망은 계속 되어왔다.

* 1 세기의 의학의 후진성을 인정해야함

당시 질병 = 하나님의 징벌로 예수가 병을 고쳤을때 비판자들은 화를 낼 정도의 후진성
그런 개념이 1979 성공회 기도서 재편집때까지도 계속 되었다. (지금도 ?)

* 예수의 치유능력은 그의 신성을 주장하기 위한 작업

* 1 세기 유대인의 의식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이해해야함

이사야 35 장, 시편 29 장 18-19

세례 요한 을 엘리야 유형의 선구자화 시킴

낙타털 옷, 가죽띠, 광야, 아버지는 스가랴 (말라기 앞장)

이것은 역사적 기억으로 선택한것이 아니라 특별한 주제를 선포하기 위해 성경 속에서 빈번히 취사선택 되었다.

*The gentile captivity of the church (교회의 이방인 포로기, AD 100 to 최근) 동안에 복음서들의 유대적인 배경 을 이해 못했고, 20 세기 후반에야 본래 맥락 속에서 그 본문이 가리키는 유대적

의미를 이해하게 됐다. 기적은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초자연적 치유 이상의 것으로 숨겨진 메시지와 code language로 가득 차있다.

Ex)시력회복 사건

마가복음: 베세다 사람을 뜯어지게 바라봄으로 단계적으로 고침

누가복음: 베드로의 부인 사건 때에 언급하여, 비통하게 울게함 (디매오의 아들 18: 35-43, 눈먼 거지)---즉각적 치유

마태복음: 즉각적 치유 (20:29-34 바디매오)

요한복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서 치유

*예수는 눈먼사람들이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을 볼수있도록 눈을 뜨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했다. 우리의 인간성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평가)

치유기적 이야기들은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려왔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안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리려는 신앙공동체의 선포이다. 삶의 본질을 볼수 있도록 우리의 열어주고, 우리의 삶이 어떤 가능성을 갖고있는지를 인식하게되면, 이 신앙공동체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인간 예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된다.

생각해볼것들)

* 기적이 잘 일어나는 사람은 어떠한 성격적 특징이 있을까 ?

---일어나는 사람에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보임 (오혜령씨, 장민아씨 케이스)

* 기도응답 (원하는 결과를 얻음)의 확률이 작음에도 보수신앙의 선교에 큰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는? ?---로토 심정인가?

* 목사님, 1 세기 Judeo-Christian culture 에 대해서 초간단 정리좀 해주세요.

기존 교회가 오해했던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추구해야할 새로운 이해의 큰 방향은 무엇인가요?